

완주 비봉면 돼지농장 사태 “악취 원천 차단해야”

중간보고대회서 주민 요구사항 수용 촉구

이지바이오그룹이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 비봉면 돼지농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의사가 확고한 완주군에 농장을 매각하거나 수백억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악취를 원천 차단하는 최고·최신 사육시설을 갖추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1일 비봉면사무소 강당에서 열린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문제해결 활동 중간보고대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지역주민 100여명은 대책위(봉산리 돼지농장 퇴출,

생태보전과 행복추구권 수호 범비봉면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이 같은 내용의 '항우활동계획'을 박수로 추인했다.

조영호 대책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돼지 밀반입에 따른 사태가 원만히 봉합됐지만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완주군에 농장을 매각해 말끔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지만, 회사측이 굳이 농장을 가동하겠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춘만 비봉면

장, 박재완 도의원, 서남용 군의원도 참석해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주민·회사 협의기구에 파견한 실무위원 3명을 발표했으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상경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행동도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지역발전기금' 등 자금을 이용한 회사측의 주민매수·분열 공작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농장 소유주인 (주)부여육종과 대책위는 지난 2일 양쪽의 실무진 2~3명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시설개보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도전 골든 벨 개최

관내 5개 고등학교서 학생 100명 참가 최후의 1인 설천고 2학년 손광혁 학생

제6회 무주 도전 골든 벨이 지난 21일 무주예체능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무주고와 무공고, 설천고, 안성고, 푸른꿈고 등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참가했으며, 설천고등학교 2학년 손광혁 학생이 최후의 1인이 되어 교육감상과 장학금 2백만 원(무주군교육발전정책재단 후원)을 받았다.

2등 금상(교육감상)은 무주고 2학년 정은비 학생이 차지해 장학금 1백만 원을 받았으며, 은상(교육감상)은 무주고 2학년 차정수 학생이 차지해 장학금 70만 원을 받았다. 동상(교육감상)은 설천고 1학년 이연지 학생이 장학금 50만 원과 함께 받았다.

무주고 2학년 장한얼 학생과 설천고 2학년 이은지 학생은 무주군수상(우수상)과 장학금 각 20만 원씩을 받았으며 설천고 3학년 김혜진 학생과 이금선 학생은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상(우수상)과 장학금 20만 원씩을 받았다. 안성고 3학년 송유진 학생 외 6명의 학생은 무주군교육발전협의회장상(장려상)과 장학금 각 20만 원을 받았다.

이날 지급된 장학금은 총 740만 원으로 무주군교육발전정책재단을 비롯



한 관내 기업과 사회단체, 개인들이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최후의 1인이 된 설천고 2학년 손광혁 학생은 “친구들과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즐거웠는데 장학금도 받고 학교 이름도 빛낼 수 있게 돼 정말 영광”이라며 “도전 골든벨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앞으로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등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해 학력신장과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는 “무주 도전 골든 벨”에서는 참가 학생들에게 △ 무주군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동 출제 한 기본 지식과 △내 고장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 △ 시사 및 교양 등에 관해 묻고 있다.

군 교육발전협의회 장덕경 사무국장 은 “해를 더할수록 참가하려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후원의 손길들도 많아져 보람을 느낀다”며 “도전 골든벨이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루며 우정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지역경쟁력 ‘괄목상대’

2년새 30계단 상승

완주군의 지역경쟁력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혁신도시, 로컬푸드, 귀농귀촌, 교통복지 등 민선6기 핵심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2년 사이에 지역경쟁력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159개 시·군(특별시와 광역시 구 제외)을 대상으로 지역경쟁력지수를 평가·발표했다.

2년마다 진행되는 지역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완주군은 29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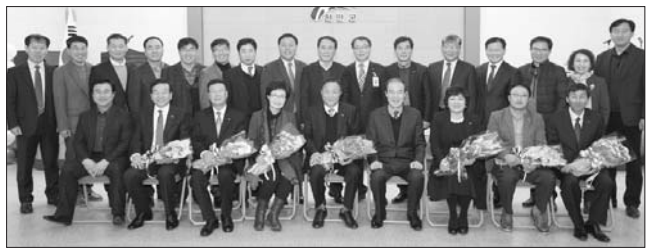
상위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전북 시·군은 완주군과 전주시(16위) 등 2 곳이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평가에서는 상위권 밖인 53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평가에서는 무려 30계단이 상승했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 기업유치 등 민선6기 주요 핵심정책 추진에 힘입어 기초생활 여건은 물론, 각종 보건복지 여건이 좋아지고, 일자리 수가 증가한 것이 순위상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분석했다.

또한 도시민들이 이주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정책 등 혁신적 정책을 추진한 것도, 2년 사이에 지역경쟁력이 높아진 것에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완주군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2016년도 제2회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KLCI) 평가에서도 전국 82개 군(군) 중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2016 하반기 퇴임식

진안군은 22일 퇴직자 및 동료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청원이 함께하는 2016년 하반기 퇴임식'을 3층 강당에서 가졌다.

군은 2016년 하반기 퇴임식에서 청원경찰을 포함한 통합퇴임식을 실시하였으며 좌석 배치와 공로패 수여 순서 역시 가나다순으로 배치해 퇴직 공무원들 간의 괴리감을 줄여 퇴(이)

임자들은 물론 공무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중전 고위직 위주의 퇴임식 진행으로 하위직과 청원경찰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민선6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격식과 기존 관례를 과감히 파괴하면서 현장에 몸담을 때는 서로 직급이 달랐지만 퇴임식이 열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동료직원들의 축하 속에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며, 똑같은 직급으로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내년도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설치 시행

장수군은 2017년 관내 단독주택 및 상가에 대해 도로명주소, 새우편번호, 세대주를 기재한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을 제작해 설치할 계획이다.

우편함 제작 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을 들여 9,500세대에 설치하며, 우편함의 노후 및 부재로 인한 마을 미관 훼손과 각종 고지서, 우편물 방치, 분실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정장수의 이미지 제고 및 생활 속 도로명주소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도로명 시설물 설치와 홍보활동으로 생활 속 도로명주소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터미널에 꽃핀 진안고원 사계

군, 시외버스공용정류장에 홍보물 설치

사계절 색다른 풍경을 뽐내는 마이산은 계절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린다.

봄에는 안개를 뚫고 나온 두 봉우리가 생뿔배 같아 ‘뿔대봉’, 여름에는 수목이 울창해지면 용의 뿔처럼 보여 ‘용각봉’으로 불린다. 겨울에는 먹물을 찍은 붓끝처럼 보인다고 해 ‘문필봉’이라고 한다. 마이산은 가을이름이다.

마이산 외에도 구봉산, 운장산, 운일안반일안, 용담호, 진안고원길, 백운동계곡,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진안고원의 주요 관광지에는 계절에 따라 4색(색)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진안군은 진안고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리기 위해 한 해 33만 명이 이용하는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에 주요 관광지와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터미널에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진안군이 관광지, 농·특산물,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터미널 내부 벽면에는 진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지 사진과 아크릴포켓을 설치해 각종 포스터와 리플릿을 수시로 교체·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 외부 벽면에도 마이산과 구봉산, 용담호, 운일안반일안 등 아름다운 진안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특히 공용정류장 이용객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탑승장 옆 벽면에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고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대형 간판을 설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가야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 위촉

장수군은 지역 대표문화유산인 장수가야를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장수가야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22일 장수군 한누리전당(다목적실)에서 가졌다.

장수군은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성과로 20여 개의 고고고분, 70여 개소의 제철유적, 10여 개소의 고대산성, 30여 개소의 봉수유적을 확인했다. 특히 제철유적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전국유일의 삼국시대 봉수가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중한 문화유산은 지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세계유산적 가치 기준인 진정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수군은 1500년 동안 잠들었던 장수가야를 깨워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세계유산 추진위원회는 장수가야가 세계유산으로 가는 시작단계로 향후,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과장급 군산대학교박물관장 등 관련전문가 9인, 안호영 국회의원 등 주민대표 10인, 행정 대표로는 김윤섭 장수 부군수와 육영수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을 포함 총 21인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최용득 장수군수는 “이번 장수가야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드러난 장수가야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안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천마축제에서 얻은 수익금과 회원들이 실시일만 성금을 보태 2백만원을 기탁했다.

무주 안성 주민자치위, 성금 전달

무주군은 지난 16일과 20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안성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이영화)가 천마축제(10월 22일~23일)에서 일일 찻집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과 회원들이 성금을 보태 2백만 원을, 20일에는 안성면 천마작목반(대표 강수복)에서 1백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안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영화 위원장은 “회원들이 함께 한 행사 수익금과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정성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기부와 봉사가 생활화해서 무주에도 사랑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면 천마작목반 강수복 대표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반원들 모두 무주군 대표 특산물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좋은 일에 함께 한다는 보람으로 일도, 봉사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접수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기획

진안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진안군은 2017년부터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농협에서 추가지원을 하여 농업인은 보험료의 약 18.3%를 부담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입원, 수술비뿐만 아니라 장해 최대 1억원, 사망 최대 1억1,000만원까지를 보장하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일반 3형의 경우 총 보험료는 17만4천원이고 이 중에서 농업인의 실제 부담액은 약 3만1,000원 정도였다.

이에 군은 2017년부터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경감하기 위해 지원금 중 군비의 지원 비율을 17.5%에서 30.1%로 상향조정했다. 농업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보험료의 약 5.7%로 위 상품 경우 약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소득작물분야 ‘우수상’

완주군이 전북농업기술원 주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소득작물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 상은 시찰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 원예작물 신기술 지도사업 보급을 통한 고소득 창출 등 시대변화와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농촌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받게 됐다.

군은 올해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실증사업 등 소득작물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군은 농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제공하고 농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 보급사업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소규모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단 본격가동

진안군은 2017년도 소규모 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지난 20일 추진단을 구성하고 420건 81억6,000만 원에 달하는 도로, 배수로 세천 등의 측량 및 설계에 착수했다.

정착형 건설교통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읍면사무소 직원 37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오는 28일 운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7년 2월말 설계 완료와 영농기 이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추진단은 합동 사무를 통하여 시설 공무원의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적정 단가산정 설계에 일괄 반영하는 등 자체 설계로 3억7,000여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예산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무주리조트 가족호텔 공사장 현장방문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21일 겨울철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무주 덕유산리조트가족호텔 공사현장 지도 방문을 실시했다.

겨울철 공사장은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우태만 발포, 용접, 용단,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요인이 많고 작업자 등 가연물이 산재해 있어 위험성이 상존하는 반면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대형화재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용접 불꽃이 공사장 기막막에 튀거나 불꽃이 비화해 스티로폼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현장소장 등 관계자 소방안전교육과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우태만 발포 및 용접, 용단 작업시 사전 신고제 안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을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에 주의하도록 지도했다.

조용주 서장은 “공사장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용접 등 불꽃 발생 작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곳인 만큼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겨울철 화기취급 주의와 전기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